

모입시다! 2014년 '해님이'를 대능가족과 함께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12월 9일(화) 오후 6시 조선히텔

총동창회 '송년의 밤' 12월 17일(수) 오후 6시 유성 리베라호텔서 개최



지난해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총동창회 송년회 모습. 500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2014년을 마감하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와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9일과 17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다.

재경동창회 '2014년 정기총회 및 대능

인의 밤' 행사는 12월 9일(화) 저녁 6시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히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당일 회비는 5만원 또는 티켓.

1부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 건

과 당해년도 결산 및 예산보고 등이 이뤄지며 올해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재경 동문을 선정, '올해의 대능인' 시상과 공로패를 증정한다. 2부 만찬이 끝난 후에는 3부 순서로 '대능인의 밤' 행사가 진행될

다. 이 행사에는 초청 연예인과 동문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행사 말미에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나눠주고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 17일(수) 저녁 6시 유성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다.

동문합창단 공연으로 식전 행사를 꾸민 후 기념식, 만찬 순서로 진행되며 '올해의 대능인'을 시상하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한다.

기념식에 이은 만찬시간에는 신임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이 일일이 테이블을 돌며 참석한 동문들께 송년 인사를 할 예정이다.

◇알림=총동창회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동문들의 좌석을 배정합니다. 행사에 참석하실 동문들은 기별 회장이나 총무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회비는 2만원이며 재경동창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올해의 대능인'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14년을 빛낸 '올해의 대능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능인상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개최됐다.

1차 회의는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중식당 라오왕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청와대의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 발표 직후 위원장이 위원들과 전화 통화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먼저 대능인상 운영 규정을 손질했다. 현 규정이 2003년에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폐지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능인상위원회를 대능인상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총동창회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돼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고 문제도를 폐지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현일(48회) 위원장(총동창회장)이 주재한 '올해의 대능인' 선정 회의에서 각 기별로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 1명을 추가해 '올해의 대능인' 7명을 최종 확정했다. (2면에 공적사항)

시상은 오는 12월 9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열리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와 12월 17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운영위원장 △이신석(48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대전보건대 교수)
◇위원 △권오덕(41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장/전 대전일보 주필) △이시구(46회, 계룡건설산업 회장) △금동화(48회, 재경 수석부회장/전 KIST 원장) △정종수(50회, 전 노동부

차관/전 중앙노동위원장) △조성남(51회, 대전중구문화원장/전 중도일보 주필) △김형태(52회,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전 대전지방법변호사회장) △전종구(52회, 전 대전시티즌 사장/전 중앙일보 중부사업본부장) △황인무(54회,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전 육군참모차장) △이장석(55회, 목포 MBC 사장) △조동인(56회, 해커스교육 그룹 대표, 전 고려대 교수)

〈수상자 명단〉

◆법조부문

권순일(56회) 대법관

◆행정부문

권선택(53회) 대전시장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
정재근(58회) 행정자치부 차관

◆교육부문

송하영(52회) 한밭대학교 총장
윤여표(53회) 충북대학교 총장

◆경영부문

김보균(51회) (주)캡트로닉스 회장



법조부문 권 순 일(56회)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 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표 가운데 233표의 높은 찬성표를 얻었다.

교육부문 송 하 영(52회)



지난 4월 11일 실시된 한밭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7월 25일 한밭대 총장에 취임했다.

행정부문 권 선 택(53회)



성균관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 제20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수석 합격해 대능인의 명예를 드높였다.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 대전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교육부문 윤 여 표(53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후 국립 충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돼 약대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대인 충북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행정부문 정 재 근(58회)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6회에 최연소로 등용한 이후 공직생활 대부분을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에서 근무했다. 정통 내무관료로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여 조직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베스트 간부'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경영부문 김 보 균(51회)



1983년 (주)켄트로닉스를 창업해 화학, 전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재경동창회 부회장으로서 결연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동기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행정부문 권 용 현(58회)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등용한 이후 대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했다. 공직생활 내내 여성의 권익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유명하다. 모교 동기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윤(56회) 동문 서울지역세무사연합회장에

세무전문가인 손윤(56회) 동문의 광복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을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2012년 11월에 국내 최초 세무사 중심 조세전문그룹 '오늘TAC'을 창설,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세무법인오늘을 중심으로 법무법인오늘로, 오늘회계법인과 컨설팅오늘을 공동 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형 조세법률서비스 그룹의 대표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이후 한국세무법인협회 부회장,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역세무사회연합회장에 잇달아 취임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손 동문은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후손으로 의암경영연구소(UIRI)를 필두로 사단법인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와



손병희장학회를 설립,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립정신 및 민주국가철학을 선양, 고취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TAC에는 현재 12명의 동문이 함께하고 있다.

강석두(29회) 전 동창장학회 이사장 별세



강석두(29회·전 대전고동창장학회 이사장) 동문이 지난 11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려대 법률학과를 졸업한 강 동문은 1973년 대양금속을 설립해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근검절약의 생활철학을 평생 실천에 옮긴 강한 신념의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13, 14대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하고, 2012년까지 동창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67·68·69회 동문회서 제165호 대능지 제작 협찬

대능지 제165호 제작은 67회, 68회(회장 김현재, 재경회장 김기태), 69회(회장 박춘일, 재경회장 김대환) 동문회의 광고 협찬으로 발행비의 대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66호는 70·71·72회 동문회에서 협찬할 차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 발전 위해 희생과 봉사할 각오 돼 있어”

〈취임 인터뷰〉

신 현 일(48회) 총동창회장

모교 총동창회 제26대 회장에 신현일(48회) 동문이 취임했다. 취임식은 지난 10월 26일 대전 보문산 일대에서 열린 대전·서울 합동등반대회를 겸한 임시 정기총회 자리에서 간략하게 치러졌다. 신 회장은 2012년부터 재경 동창회장을 맡아 열정적인 리더십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 개교 100주년을 2년 반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은 신 회장을 만나 총동창회 운영 구상과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총동창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선뜻 기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총동창회 사정이 어렵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솔직히 난감합니다. 오늘로 취임한지 25일째인데 벌써 네 번이나 서울에서 내려와 동창회관에서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닥칠 일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오는 돼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일 네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회장 이야기가 오갈 때부터 모교나 총동창회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자세히는 몰랐죠. 원로 선배님들이 워낙 간곡하게 당부하시고, 재경 동창회를 맡아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마지막 봉사 기회로 알고 수락을 한 거죠. 어찌됐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피해 갈 생각은 없어요. 하루 빨리 새 집행부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재정 확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20여년 전 재경 동기회장을 할 때도 2억 원 가까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쓰든 안 쓰든 공간이 비면 살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기업인입니다. 제 몸 속에 신뢰와 투명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동창회 운영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나갈 겁니다”

—결국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복안이 있나요?

“지금처럼 일부 재력있는 동문들에게

—먼저 어떤 일부터 착수할 계획이신지요?

“새 집행부 구성부터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할 만한 분들은 이미 거의 다 거쳐갔고,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야 하는데 선뜻 나서는 이가 없어 고민입니다. 꼭 동기생이 아니라도 좋은 동문들을 많이 추천해주셨으면 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는 잘 돼가나요?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주변에서 100주년, 100주년 그러는데 벌써부터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념사업회 조

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여론을 좀 더 들여보고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기념사업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동창회관을 옮길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중히 대처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시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무엇보다 재경동창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차피 100주년 기념관을 동창회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면 리모델링을 잘해서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재경 동창회 말씀이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뿐 아니라 장학사업에도 재경동창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모교와 동창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경동창회의 역할과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예전의 전성기 때에 비해 많이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동문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이 분들이 모교와 동창회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역할입니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지금보다 더 소통이 잘 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장학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대전과 서울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양쪽 합해 원금이 42억 원쯤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 보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100억 원 수준으로 장학기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원화돼 있는 장학재단을 하나로 합치고 기금을 확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문제라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 모교와 동창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마음을 열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모교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현실이니까요. 예전의 선배 세대들이 오늘날의 위축된 모교 위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미래의 모교 모습을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동문은 지금 동창회에서 모교에 지원하는 게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동문들이 모교 살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보면 머지않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날이 올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색이 3만8천 명이나 되는 동문을 보유한 큰 조직이 수백 명의 동문들 호주머니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죠. 동문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회비를 납부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창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기대가 더 큰 것 같은데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조만간 임원회의에서 구상을 밝히겠습니다만 제가 출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총동창회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발전기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분담금을 부담할 임원도 더 늘리고, 모금 활동도 더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 핸드폰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도 정비해야 하고, 기금 모금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기념사업 프로그램은 원로 선배님들을 비롯해 전체 동문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고민인데 모교와 동창회의 100년 역사를 묶어내는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책자로 펴내는데 2년 반은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동안의 지지부진을 만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총동창회 소식지 ‘대능’이 이런 사정을 널리 알려 회귀자료를 구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기념사업 방향은 잡혀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다만 행사를 위한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모교나 총동창회에 흔적이 남을 만한 행사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생

“장학재단을 합치고 서울서 이사장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초대석〉

박 종 윤(33회) 대능장학재단 이사장

박종윤(33회)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총동창회 회장 재임 시절이던 2000년 12월에 재단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초대 박영규(28회) 이사장에 이어 2004년부터 이사장을 맡아 올해로 10년째 재임 중이다. 장학금으로 쾌척한 기금만도 7억 원에 이른다. 또 10억을 채울 때까지 기부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지켜 나가고 있다. 박 이사장을 만나 대전과 서울로 이원화된 장학재단 문제와 동창회 발전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어보았다.



“자료를 봐서 장학금 모금현황이라든지 지급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동창회 활성화 방안과 장학재단의 미래비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 회장이 서울에서 난 건 잘 됐다고 봅니다. 서울과 대전이 하나가 돼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대전이 하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과 대전에 있는 두 재단이 합쳐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서울 재단과 대전 재단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재단 이사장 맡은 지 10년째인데 서울과 대전이 하나가 되려면 서울에서 이사장이 나오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은 대전으로 와야 해요. 왜냐하면 모교가 대전에 있으니까. 학교가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 재단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을 서울에서 맡아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사장 할 사람을 지금도 물색하고 있고, 부탁도 하고 있어요. 주로 회장에게 부탁을 했고... 아주 열정적이고 희생정신이 있고, 또 술선해서 출연도 하고 해야지 이름만 걸여뒀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2년 반 뒤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모금운동,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금운동인데 서울과 대전이 하나가 된다면, 그 모금운동이 반은 성사가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이 지금 30억 가까이, 정확히 27억인데, 서울도 12~13억 정도 된다고 하니 합치면 금방 50억이 될 수 있어요. 대전만 하더라도 30억이 되는데 내 바람은 100주년 때까지 50억은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과 대전이 하나가 된다면 100억 모금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50억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주

년 사업의 시동을 거는데 빨리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재단을 합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재경동창회의 1:1결연장학금이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단과 통합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재경동창회에서 1:1 할 때부터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서울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많이 못해도 그동안 학생들에게 장학금보단, 우리가 선생님들을 격려할 수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매년 3천만 원씩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서 조금씩 발전해야 해요. 얼마 전 심지어 학교 우정화사에 사감 선생님 세 분이 매달려 있지만 그 분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고생만 하고, 집에도 못 가고 학생들과 함께하는데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처음엔 내가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내서 그 분들 격려를 해주라고 지원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건 재단에서 할 일이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던 걸 재단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씩, 금년엔 어떤 독지가가 1000만 원을 더 내서 4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재경동창회에서 1:1결연장학금을 잘 하기 때문이에요. 1:1장학금이 없으면 우리도 장학금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맙고 기회만 있으면 일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년 연례보고서에도 그 고마움으로 1:1장학금을 출연해주는 동문들을 광고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하나의 관례, 전통이 됐기 때문에 모금하는 것과 관계없이 재단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100명, 말이 그렇지 지난 번에는 110명,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서울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대전 총동창회에서도 함께 거드는, 성의를 보이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

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대전도 참여시켜 함께한다면 서울도 짐이 가벼워지고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장님께서 100주년까지 100억 원 모금을 희망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할까요?”

“100억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재단을 합치면 가산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진행해도 가능한 하지만 합쳐서 하면 더 활성화되고 불이 붙어서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억을 모금하고 1:1결연장학사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자금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1:1은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또 서울만 할 게 아니라 총동창회에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외국에 있는 동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모금에 참석시키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어요. 매년 연례보고서를 지회가 있는 곳에 보내고 모금운동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결실은 거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외국도 동문들 여건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카고 이석순(33회) 동문이 1억 원을 약정을 하고 지금까지 4000만 원을 냈는데 앞으로 1억을 채우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이게 좀 확산이 돼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신현일 신임 회장은 재경동창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현일 신임 회장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큼

니다. 나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천거했어요. 기대가 큰 건 기업하는 사람은 뭘 한다 하고 목표를 정하면 추진력도 좋고 책임감도 큼니다. 방향 설정을 잘하고 목표를 잘 세우면 분명히 결실을 이룰 거예요. 문제는 우리 동문들이 심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협력하고 동참해서 조금씩이라도 능력껏 후원하고, 출연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선적으로 회장이 가장 앞장 선 사람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전 회장이라든지 동창회 임원들,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동문들이 앞장을 서줘야 그 분위기가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연히 앞으로 100주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응이 잘 먹혀들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기가 올 걸로 봅니다. 가장 적기에 신 회장이 잘 맡았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소모임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묶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평소 동문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자부심이 강하고 예전의 전성기 때 명성을 그리워하지만 모교가 많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뭘 도와주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금 활동은 추진위원회를 따로 뒀서 회장과 양립해 서로 협조하는 게 좋으나, 회장이 겸직하는 게 좋으나 이런 문제는 회장이 잘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추진위원장은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출연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동문을 선출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간다면 신 회장이 외롭지 않고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젊고 능력 있고, 추진력과 희생정신이 있으면서 모교에 애정이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런 사람을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두면 좋을 거예요. 물론 리더가 앞장서 열심히 하면 잘 따라가겠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몇이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글로벌 대능인〉

한 상 기(32회) 미 조지아 명예교수

아프리카서 23년간 식량연구 기근 해결에 큰 공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인류를 구원한’ 위인으로 소개

- 이 넓은 사하라 사막에서/한 줌의 모래를
집어봅니다./이 무진장한 대기 속에서/한
숨의 공기를 마셔봅니다./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한 번 눈을 살며시 감아봅니다./내
맥박을 장단 삼고/저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
/드넓은 사하라 사막에/아주 작은 발자국
남기면서/한 발짝 한 발짝 걸어봅니다 -

세계적 육종학자인 한상기(32회, 미국
조지아대 원예학과 명예교수) 동문이 최근
발간한 명상집 〈아프리카, 광야에서〉에 자
신의 삶에 대한 소회를 적은 짧은 글이다.

23년 간 아프리카 국제열대농학연구소에 근무하며 가
난한 현지 주민들의 주식 작물인 카사바와 양, 고구마 등
구근식물과 식용 바나나를 개량, 보급해 기근 해결에 혁
혁한 공을 세운 한 동문의 박애정신은 우리나라 초등학
교 국정교과서 6학년 1학기 국어읽기에 ‘인류를 구원’
한 위인으로 실려 있을 정도다. 또 한 동문의 일대기를
그린 웅진출판사의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은 2001년에
출판돼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세계 70여개 저개발국을 여행하며 식량문제 해결에
앞장서 오다 얼마 전에 은퇴해 현재 부인과 수원에 거주
하고 있다.

청양 출신인 한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서울대 농대에 입
학해 1957년 농학석사로서 국내 최초로 ‘잡초학’을 연구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67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식물
유전육종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귀국해 서울대 농대 조
교수로 재직하다 71년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
고 그해 나이지리아 소재 국제열대농학연구소 구근작물
개량 연구원으로 아프리카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23년
간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매진하다 은퇴하고 현재 미국
조지아대 원예학과 명예교수, 미국 작물학회와 영국 생
물학회 펠로우로 있다. 1982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해



영국 기네스 과학공로상을 수상했다. 1984년에는 국제
구근작물학회 제1회 우수 봉사상을 수상했다. 영국 세계
농업명사록에도 이름이 실렸다. 1998년엔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했
다. 2006년과 2009년에는 세계식량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브라질 환경장관 공로상과 영국 생물학
회 펠로우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아프리카, 광야에서> <아프리카 사람, 아프
리카 격언> <신비의 땅 아프리카> 등이 있다.

〈새 의자〉

이 우 영(59회)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전국에 산재한 34개 캠퍼스에 교수만 1400여명 ‘훈련의 질’ 임기 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것

인력자원개발(HRD) 분야 전문가인 이우
영(59회) 동문이 전국에 34개 캠퍼스를 두
고 산업전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 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
술교육대학교 교수인 이 동문은 쟁쟁한 인
사 23명이 경합한 공모 절차를 당당히 뚫
고 이사장에 선정됨으로써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1,400여명의 교수진이 연간 15만여명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거대 조직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부임
하면서 이 동문이 바꾼 이메일 ID가 언론에서 화제가 됐
다며 말문을 트자 “CEO 007 말이군요. 제가 7대 이사장
이라는 뜻에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영원히 이어가기를 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새로 만들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
왔다.

007은 이 동문이 이전부터 즐겨 쓰던 이메일 ID로, 유
명한 007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는 날렵한 첩보원의 코드
명이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기민한 업무 수행을 촉구하
려는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이 동문은 취임사의 키워드로 ‘성과’를 강조했다고 한
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간
4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만큼 성과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전국에 산재한 캠퍼스를 초
도 순시 중이라는 이 동문은 3년의 임기 내에 폴리텍대
의 ‘훈련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에서 4년 4개월 동안 최장수 산학협력



단장을 맡아 연간 35억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390억원
으로 끌어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HRD컨소시엄 허
브사업단장, 능력개발연구원장, 창업보육센터장 등 인적
자원개발 관련 핵심 보직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
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동문은 “그동안 인적자원개발 연구자로서 조언만
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현장을 뛰면서 대한민국을 능력
중심 사회로 바꿔 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 · 별 · 소 · 식

35회

◆행사

2014년도 하반기 임원회

- 일시 2014년 11월 19일 11:00
- 장소 동창회 사무실

◆개별모임

- 대월회 회장 권영준
- 대신회 회장 최기현, 총무 이영복

◆주소 변경

- 송윤용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21 A-201(문화동, 태극빌라)

◆애사

- 강홍열(재미) 본인상
- 김 흥 본인상
- 이용철 본인상
- 송세현 부인상 10.3
- 남용섭 본인상 10.30

36회

◆망년회

-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17:00
- 장소 월산본가(Tel:042-256-4100)
- 회비 20,000원

◆2014년도 연회비 안내

- 회비 10,000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451601-04-207181 유일준
-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 납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경사

- 한상목 본인상 10.1
- 임병호 본인상 10.8
- 강인태 본인상 10.30

38회

◆재경38회 동문 초청 아우회

- 일시 2014년 10월 9일
- 장소 서울대공원 등산 및 전쟁기념관 관람
- 재경 윤창노 회장 등 75명, 대전 이용만 회장 등 38명 총 113명 참석

◆제3차 이사회

- 일시 2014년 10월 22일 18:00
- 장소 미가사랑
- 이용만 회장 외 21명 참석

◆연락처 변경

- 김수진 042)471-9013
- 김철호 010-7411-0597
- 남광원 010-3403-0852
- 박상록 010-6434-7755
- 유정봉 010-3452-5570
- 최상진 010-5221-0295
- 최인수 010-4679-7217
- 홍갑순 010-9691-4734

◆애사

- 우제국(재미) 모친상

39회

◆목고회(회장 한건웅)

- 10월 16일, 뇌출혈로 재합치료 중인 서정훈 회원 문병
- 서 동문은 혈압약을 복용 중인 동문들에게 꾸준한 복용을 간곡히 당부

◆매화회(회장 윤명중) 단풍놀이

- 11월 4일, 회원 8명이 계룡산 삼불봉 등

40회

◆대전·재경 동문 합동 가을여행

- 일시 2014년 10월 15일
- 장소 무령왕릉을 비롯한 공주·부여 백제문화유적지
- 대전동문 25명과 서울동문 41명 참석



44회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효정 인천 서구 원적로 124번길 21, 2-908(가좌2동 현대③)
- 이봉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67번길 50 101-302(동천동, 삼성체르빌)
- 홍명식 대전 서구 계룡로 686번길 18 102-804(용문동, 아이누리A)

◆애경사

- 이원용 여혼 11.1
- 강 현 자혼 12.21
- 김중섭 자혼 12.21

45회

◆45회 사무실 이전 안내

- 대전 중구 대흥로10번길 50, 204호(대사동 248-282)

◆경사

- 정세호 자혼 10.3
- 조용환 여혼 10.11
- 권기원 자혼 10.25
- 조규천 여혼 10.25

46회

◆재경46회 국립 현충원 트래킹

- 일시 2014년 9월 20일 10:00~17:00
- 장소 국립 현충원 둘레길(서달산 8Km)
- 참가인원 35명

◆애경사

- 강원규 부친상 9.24
- 박길호 장인상 10.8
- 권오현 자혼 11.1
- 이수연 자혼 11.8
- 김원봉 자혼 11.22
- 백채완 자혼 11.23
- 윤후상 여혼 11.30

47회

◆대전·서울 합동 체육대회(등산)

- 일시 2014년 10월 9일 11:00
- 장소 남한산성
- 참가인원 72명(대전 22, 서울 50)

◆대전동창회 자문위원회

-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8:30
- 장소 연향
- 참석인원 10명

◆대전동창회 제2차 운영위원회

- 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18:30
- 장소 무진장
- 참석인원 13명

황인기 동문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 특별 기획전'

46회

황인기 동문(전 대전여고 교장)이 교직 생활 동안 모아온 각급 학교 교과서 및 척독류(근대까지 가정에 비치해오던 모범 편지글 모음집), 학창시절 노트, 교육용 민속자료, 생활용품, 레코드판 등 5,200여점을 지난 2013년 12월 미래엔 교과서(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



물관에 기탁했다.

황 동문은 자신이 보존 관리해오던 2,000여점도 대전 한밭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다.

손종현 동문, 충남대에 13억 상당 최신 공작기계 기증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종현 동문((주)남선기공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월 11일 충남대학교에 최신 복합가공기와 자재 등 13억 원 상당을 기증했다.

손 동문은 작년 3월에도 한밭대학교에 5축가공기(7억 원 상당)를 기증한 바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대전 시내에 있

는 대전공고, 동아마이스터고, 충남기계공고,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등 공업계 고등학교에 각각 5축가공기 2억5천만원 상당의 공작기계를 기증해오는 등 현재까지 대전 시내 대학교와 공업계 고등학교에 총 30억 원 상당의 최신 공작기계를 기증했다. 손 동문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증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동창회 정기총회 겸 2014 송년회

-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18:30

- 장소 중식당 태원
- 참석인원 40명

◆축하

- 이길원 동양화 개인전: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 10월 29일 ~ 11월 4일

◆애경사

- 유영길 모친상 9.19
- 이완주 자혼 10.12
- 조민상 장모상 10.18
- 민병구 자혼 10.25
- 김학수 여혼 10.25

49회

◆49회 카페 개설 9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

- 일시 2014년 9월 5일(금)
- 특별공로상 황동준, 이흥근, 김진태, 유정호
- 베스트 여행기상 고 조규찬
- 베스트 댓글상 전찬두
- 베스트 콘텐츠상 임하영, 김동운

◆49회 친선골프대회

- 일시 2014년 10월 9일(목)
- 장소 이븐데일 C.C.
- 주관 초도회/고우회

◆대전 동기회 11월 월례모임

- 일시 2014년 11월 19일(수) 19:00
- 장소 태원

◆재경 49회동기회 송년의 밤 겸 총회

- 일시 2014년 12월 3일(수) 18:00
- 장소 한일장 4층(02-2265-7707, 종로구 관수동19-3)

◆개별모임

- 재경 서초강남 11월 정기모임

- 일시 2014년 11월 12일(수) 18:30

- 장소 내고향 본가(02-540-6331)

- 분당 동기회 11월 월례모임

-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9:00

- 장소 화수목

- 송년회 11월 정기모임

-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8:00

- 장소 산들회

- 우보회(바둑모임) 11월 월례회

- 회장 이태희

- 일시 2014년 11월 16일(일) 13:00

- 장소 봉천기원

◆애경사

- 하수영 모친상 9.4
- 김문겸 자혼 9.20
- 오병실 자혼 9.20
- 이희선 장모상 10.3
- 민창기 자혼 10.11
- 이희선 자혼 10.18
- 김선형 자혼 10.19
- 윤동수 모친상 10.19
- 김선형 부친상 11.2
- 심석근 자혼 11.22
- 조선구 자혼 11.29
- 김종섭 자혼 11.29
- 박대복 자혼 11.29

51회

◆51회 산악회 히말라야 랑탕 트레킹

- 일시 2014년 11월 7일~14일
- 대원 김재성, 김계동, 김보균, 김진택, 손광기, 손문영, 윤민상, 이광원, 이돈배, 인현빈, 장원영

◆애경사

- 오병하 장모상 9.26
- 이용신 모친상 10.3
- 김홍규 여혼 10.11
- 국중근 자혼 10.11
- 최연익 자혼 10.18
- 정하용 자혼 10.18
- 이광우 여혼 10.25
- 송영호 자혼 11.8
- 김 현 자혼 11.15
- 정근창 여혼 11.15
- 강승식 자혼 11.22
- 임현준 자혼 12.6

기 · 별 · 소 · 식

53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무사히 마쳐

2014년 10월 9일 (목) 11:00 ~ 16:00 생존해 계신 여섯 분의 은사님을 모시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인식 대전시의장 등 250여명의 53회 동기생과 가족이 모여 '반갑다 친구야! 우리는 만나야 살맛이 난다!' 행사를 조출하면서 규모있게 치렀다.



◆축하

·有情 오정덕 여사(류근철 부인) 서예전 대전갤러리 10.16~20

◆애경사

- 이명환 부친상 9.23
- 오상만 부친상 10.11
- 이홍우 여혼 10.12
- 송인승 모친상 10.13
- 김관태 자혼 10.25
- 김만구 장인상 10.26
- 박관우 장모상 11.2
- 故 주범종 자혼 11.2
- 이규성 부친상(이해종 前 모교 교장) 11.10
- 송규성 자혼 11.15
- 이명식 여혼 11.22

54회

◆미담

·담낭암으로 투병 중인 남승환(10반) 친구를 위해 10반 주도로 모금운동을 전개, 80여명이 참여하여 600여만원의 성금 모금. 10월 8일(수) 대전동창회 월례회 때 10반 박정중 간사가 여러 뜻있는 친구들의 소중한 성금과 마음을 전달하고 패유를 기원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대표인 서용주 동문이 재경69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100만원 쾌척

◆재경 송년모임

- 일시 2014년 12월 6일(토) 17:00
- 장소 차이흥(여의도역 5번 출구)

◆재경 54회 싸이클동호회 <싸이클럽> 라이딩

- 일시 2014년 11월 1일~2일 (토, 일)
- 코스 서울 - 민예단지 삼거리 - 미시령 - 속초 - 거진항(총 75킬로)
- 참석 최광영 부부, 이권훈 부부, 정영재 부부, 송남영 부부, 노성우 부부, 한규혁, 김연수, 김상현, 박종덕, 민병옥(15명)



◆애경사

- 유영희 모친상 9.19

- 이용세 모친상 10.4
- 전영욱 장인상 10.11
- 이강일 자혼 10.12
- 성창현 자혼 10.18
- 안기혁 자혼 10.18
- 조성근 자혼 10.18
- 호정환 자혼 11.15
- 전영화 여혼 12.20
- 김남현 여혼 12.6

56회

◆반창회

- 6반 반창회(서울, 용사의 집) 10.25
- 11반 반창회(대전, 태화장) 11.8
- 3반 반창회(서울, 대원한정식) 11.13

◆산악회

- 대전 56산악회
 - 9월 산행(덕유산) 9.3
 - 11월 산행(남도 여행) 11.1
- 재경 56산악회
 - 10월 정기산행(예봉산) 10.5
 - 11월 정기산행(북한산) 11.2

◆삼목포럼

- 9, 10월 모임-교대역, 명동 칼국수집

◆애경사

- 김정순 본인상 10.1
- 주용국 자혼 10.11
- 윤문중 여혼 11.22
- 오국진 여혼 11.22
- 김성오 여혼 11.22
- 황명선 여혼 11.29

58회

◆애경사

- 민익기 모친상 8.25
- 이재우 모친상 9.22
- 오건성 모친상 10.2
- 이동혁 장인상 10.2
- 한규승 본인상 10.9
- 김연태 부친상 11.3
- 문성식 자혼 12.6
- 이규상 부친상 11.10

◆출간

- 금기형(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본부장) 기획 <두꺼비가 옥황상제의 외삼촌 이라고?>, <달고 시원한 수박은 어디서 왔을까?> 이상 학교재 판
- 윤경(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판
- 이후영(모교 사감) <역주 악서 4권> 소명출판사 판

◆개업

- 변재훈 세이박스 대표 홈플러스 세종점 1층에 200평 규모 '세이박스세종(주)' 개업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154 C.P. 010-4767-4101
- ◆2014년도 58회 연회비 납부안내
 - 58회 연회비 100,000원
- 58동문회
 - 하나은행 금기반 622-910075-15105
- 재경 58회(직장이 서울경인지역)
 - 외환은행 도정화 620-227411-096

58회

제1회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9월 20일 4시, 대둔산 운주계곡 권선국 친구의 별장에서 '제1회 숲속의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었다.

전일 손근수 친구를 비롯한 울산 동기들의 초청으로 재경에서 관광버스로 20여 명의 동기들이 울산에 갔다. 그물후리치기를 하는 등 성대하고 흥겨운 1박 후 운주계곡으로 향발. 대둔산 등반 후

합류한 친구들, 또 직접 합류한 친구들을 포함, 90여 58회 가족의 축제였다. 안대수, 강훈구 친구의 밴드, 드럼 연주로 흥을 돋우고 이니영 첼리스트의 연주로 운주계곡에서의 추억 만들기는 절정을 이뤘다. 내년에 2회째 행사할 친구도 정해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1회 숲속의 작은 음악회' 행사를 위해 여러 날 세심히 준비해 준 권선국 친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해 준 58회 가족들께 감사드린다.

◆대전고 58장학회 자동이체 후원 해주 세요.

- 농협 오충환 453046-51-036607

◆58회 홈페이지 가입 안내(현재 226명) 네이버 카페 DJH58 홈페이지 가입해 주세요. 가입 시 반 이름 써주세요 등업 시 쉽게 승인됩니다.

59회

◆회원등성

-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취임 10.27

◆경사

- 이충재 자혼 10.18

◆2014년 59회 연회비 납부안내

2014년도 벌써 12월입니다. 모든 대전고등학교 59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 대전(80,000원) / 서울(100,000원)
- 계좌 대전

농협 453039-52-157331 (김항석)

서울경기 신한은행 110-258-880304 (김신철)

◆59회 네이버 카페 가입안내

<http://cafe.naver.com/daego59>

대고59회 동기들의 소식을 알리는 카페입니다. 동기들은 모두 가입해주세요.

61회

◆61회 친선골프대회

- 일시 2014년 10월 19일(일)
- 장소 상페힐C.C.
- 참석인원 70명
- 우승 임태갑
- 준우승 박종양



65회

◆애사

- 김영민 장인상 9.26
- 송태완 장모상 10.12
- 정윤선 장모상 10.21
- 윤희규 장인상 11.12

◆65회 다음카페 가입안내

<http://cafe.daum.net/daejungo65>

홈페이지와 당분간 공동 운영하고 2015년 홈페이지 폐쇄

68회

◆개업

- 이종원 수입차 부품 유통 및 정비센터 카니즈 개업 10.9



69회

◆69기 동창회 정기모임

- 일시 2014년 8월 22일(금) 19:00
- 장소 둔산동 푸른채
- 이도훈 외 17명의 동기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제6대 회장으로 박춘일 동기 연임. 신임 총무에 정돈희 동기 선임



◆69골프회 정기 라운딩

- 일시 2014년 9월 21일(일)
- 장소 익산 에메랄드C.C.
- 박찬순 회장을 비롯한 5개조 20명의 동기가 운동을 즐기며 우정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2014년 대능가족등반대회 최다 참가 기수상 수상

- 10월 26일(일) 열린 '2014 대능가족등반대회'에 김대환 재경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동기와 가족 등 총 30명이 참석해 60대 기수 최다 참가 기수상 2등상 수상

〈자랑스러운 대능인〉

백 승 엽(60회) 경남지방경찰청장

백승엽(60회, 치안감) 동문이 지난 9월 1일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백 동문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총경), 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격무 속에서도 교통공학 박사학위(서울시립대)를 받은 학구파로 대통령표창(2002), 근정포장(2007), 홍조근정훈장(2013)을 수훈했다. 예산 출신.



“대능인의 자긍심과 자부심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근황을 소개해주세요.

“존경하는 대전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고(大高) 60회 졸업생 백승엽입니다. 저는 금년 9월 1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제26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는 약 340만 명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약 10.51%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총 8개 시, 10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서는 모두 23개인데 11월 중순 현재 17개소의 초도방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지리산과 낙동강, 남해안이 어우러진 멋진 풍광으로 계절 따라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최근 통합 창원시 및 김해, 양산 등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현재 5대범죄, 교통사고 등 치안수요는 전국 16개 지방청 중 약 3~4위 수준입니다. 저는 부임 직후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경남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2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멀리서나마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에도 우리 동문들이 여러분 계시죠?

“지난 10월초, 경남지방경찰청 소재지인 창원 시내 일식집에서 열린 대고 동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45회 선배님부터 65회 후배님까지 2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 30여년 전 이곳 창원, 마산 지역에는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 규모가 좀 줄어든 감이 있는데 아무튼 대전·충남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어김없이 우리 대고 동문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대고 모임이 있으면 가능한 한 자주 참석해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情)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찰관 외길을 걸으며 느끼는 소회가 궁금한데요.

“저는 81년 3월 국립경찰대학에 입학해 85년 4월 제1기생으로 졸업한 후 벌써 29년째 경찰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성, 긴급성, 강제성’이라는 고유의 업무 특성상 본인 의지에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별탈없이 무난하게 승진을 거듭하여 총경 시절에는 대구 달성, 경기 시흥, 서울 서대문 등 3개소의 경찰서장을 지냈고, 치안감 승진 이후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대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능인으로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모교 후배들에게 주언해 주신다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는 매우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봉사정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은 평생시 끊임없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과 만나 부대끼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가며 공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경찰관이 되는 길은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거나, 4년제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경위(팀장급)가 되거나,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 합격 후 일정 조건에 충족될 경우 경정 또는 경감(과장, 계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

며, 퇴직한 이후에는 본인 사망시까지 소정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앞으로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모교 후배가 있다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경찰의 임무가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일생 동안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겠는지, 또 자신이 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교 재학 중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난 1978년도 대전고교 1학년 때 성모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동기생 3명과 함께 하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경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 11시경 하숙집에 돌아오던 중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골목을 막아선 채 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니깐 요즘 담배 피우지 않는 고등학생놈이 어디 있냐며, 그러면 가진 돈이라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학교 주변에 기생하는 건달이나 폭력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솔직히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겁도 나고, 그 남자에게 한번 세계 맞으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 하숙방 친구들에게 그 날 일을 다 털어놓았고, 그 후 약 2주간 야간 하교길에 하숙생 3명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번엔 또 다시 그 녀석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면 아주 묵사발을 내주려고 별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동네조폭’ 내지 ‘골목조폭’인데, 그 당시 제가 피해를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면 잘 해결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웃음).”

—큰일 날 뻔했군요(웃음). 학창 시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연코 세 분의 담임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한병 영어 선생님은 제가 시골 출신임에도 1반 반장을 맡도록 허락해주셨고, 당시 유명했던 <성문종합영어>도 사주시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2학년 때 담임이셨던 강진수 수학 선생님은 1학기 중간고사 주관식 수학기시험에서 저에게 30점을 주시는 등 학생들을 냉정하게 다루셨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와 저희들이 매사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장광순 화학 선생님은 나중에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실 정도로 큰 열정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의과대학과 경찰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할 때 결국 경찰대학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주셨고, 이후 3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때때로 전화를 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세 분을 모시고 유성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모쪼록 앞으로 세 분은사님 모두 사모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백년해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대고 재학 시절, 당시 모교 은사님들은 우리 대전고등학교는 ‘한강 이남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대고 출신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제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고 앞으로 영영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하대고의 졸업생이라면 그 누구나 우리가 옛날 고교 시절 가슴에 품었던 ‘자존심과 자부심’을 잃지 말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고 돌풍! 제8회 Yes24.com배 고교동문 바둑대회 4강 진출

〈기고〉

임 관 순(60회·기우회 총무)

◇6월 21일 예선 통과 제8회 Yes24.com배 고교동문 바둑대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25개교가 참가한 예선대회에서 우리는 1회전에서 신일고등학교를 꺾고 비교적 손쉽게 32개팀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전에서 조남선(58회), 원철(62회) 동문이 출전했고, 서울에서는 정범훈(54회), 이정균(60회) 동문이 출전했습니다.

◇7월 20일 16강 진출 32강전 첫 시합을 양정고와 치렀습니다. 바둑TV로 녹화중계되는 본선 1회전이기도 한 이 시합에 대전에서 김태민(47회) 동문이 처음으로 출전했고, 예의 조남선, 원철 동문 그리고 서울에서 이종진(54회), 정범훈, 이정균 동문이 출전했습니다. 김태민, 조남선, 원철 동문이 출전한 첫 대국을 승리로 기분 좋게 출발한 우리는 아쉽게 2국을 내주었고, 최종국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해 본선 2회전에 올랐습니다. 실력에 비해 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우리는 김태민 동문이 처녀 출전하면서 탄탄한 팀웍을 갖추게 되었고, 16강에 진출함으로써 2015년도 대회에는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시드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6강전에서 마주치게 된 휘문고는 전년도 준우승팀으로 당시 4강 멤버 중 유일하게 16강에 오른 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안정되어 있고 팀웍도 매우 좋은 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겨루어 볼 만한 팀이어서 아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8월 2일 조남선 동문이 운영하는 대전 소재 한국기원에서 선수 6명 전원이 모여 친목과 팀웍을 다지는 훈련을 하면서 승부에 대비했습니다.

◇10월 28일 8강 진출 결승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강팀 휘문고와의 16강전 첫 대국이 오전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국에 김태민, 원철, 이정균 동



대회 진행 장면



32강전(대 양정고)에서 검토하는 선수들(좌측부터 정범훈, 원철, 조남선, 이정균, 김태민, 이종진)



한준환 동문이 오영식(46회) 동문에게 진을 권하고 있다.

문이 출전해 상대팀의 에이스들과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어 일단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대국이 이번 대회 결승 진출의 분수령이 될 시합일 것입니다.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는 2국은 점심식사 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국에서 정범훈 동문이 조자룡 현칼 쓰듯 상대방

의 허점을 마구 공략하여 딱! 끝!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쉽게 상대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선수들의 단합된 힘이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어느새 우리 대전고등학교 바둑이 잠재력 있는 팀에서 막강한 팀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대국은 바둑TV에서 11/30(일) 밤11시에 방영됐고 12/5(금) 밤11시에도 방영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4강 진출 불과 2주만에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8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계성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팀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국에서 불과 2집반의 신승을 거두면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대팀이 진행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도 늦어지고, 우리 선수들도 예민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어야 하는, 기본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8강에 오른 팀을 조금 만만하게 본 우리의 실수도 있었겠지요. 결국 2국을 내주었고 진땀 나는 최종국을 두어야 했습니다. 마침 전 대능기우회장이신 한준환(45회) 동문이 3국 1장전이 끝날 무렵 응원을 오셔서 2장전, 3장전을 손에 땀을 쥐고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긴장해서 숨조차 못쉬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苦盡甘來), 괴로움 뒤의 즐거움이 더 큰 모양입니다. 더 많은 즐거움이 찾아왔고 기분 좋은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웃음과 곁에 찬 목소리들이 높게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준환 동문이 피로연을 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8강전 대국은 바둑TV에서 12/19(금)~12/21(일) 밤11시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재방송은 그 다음 주 화~목 새벽 6시에 방영됩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준결승전은 12월 13일(토)에 경북고와 두게 됩니다. 선수단은 앞으로 대전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능인의 드높은 기상으로 우승을 향하여-

대전고 100주년 기념 행사기금 모금 캠페인

一·百·百 運動

(1일 100원씩 100주년까지!)

하루 100원씩이 모여 대전고 100년의 역사가 쌓여갑니다

손에 손잡은 대능가족 晩秋의 보문산 자락을 물들이다

대능가족등반대회 성황리에 끝나

2014 대능가족등반대회가 10월 26일 (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보문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장과 신현일(48회) 차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이 가을빛으로 물든 보문산을 오르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등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총동창회는 10시 40분에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 9월 22일 총동창회 이사회 및 회장단·기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신현일(48회) 재경등창회장이 제2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하고 신임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신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의 명문 전통을 잇도록 동창회와 모교가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발간될 대능지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능가족 모여래



재 한 곡조 나갑니다!



반갑다 친구야



체조로 몸부터 풀고...



하이고, 축하합니다!



총동창회장을 배출한 48회입니다~



위하에



사모님들 신났네요~



아빠 따라 왔어요~

야구동아리 HBC 우승



모교 스포츠클럽 야구 동아리 한모베 이스볼클럽(HBC)이 지난 9월 25일 충남 중에서 열린 '2014 대전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야구 동아리 HBC는 지난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두 번째 출전만에 우승을 하게 됐다. 대전지역 12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HBC는 1차전에서 부전승으로, 2회전에서는 계룡공고를 3대0으로, 3회전에서는 반석고를 7대0으로, 4회전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유성고를 4대0으로 이기는 등 3차례 모두 방어율 0점대의 완봉으로 압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감독인 홍성룡(74회) 교사는 "이번 대회는 HBC 구성원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포츠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알찬 경험이 되었다"며 "이번 대회 우승은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금강대와 자매결연



지난 10월 20일 모교 교장실에서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교는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협력사항은 ▲양교 간의 연계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및 교육자료 교환 ▲교육시설, 기자재 및 교육장 공동 활용 ▲진로 및 진학을 위한 교수진 특강 지원 등이다.

모교 김현규 교장은 "금강대는 작지만 강한 특화된 대학으로 탁월한 장학제도와 복지시설을 갖춘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알고 있다"며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양교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지난 10월 23일 모교 시청각실에서 대전 지역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모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부모 및 중학생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2015학년도 신입생은 그 동안의

자율형공립고의 선지원 방식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입학전형이 동일해져 내신성적과 관계없이 희망순위(정원의 60%)와 주변 지리정보(정원의 40%)를 활용한 평준화 배정으로 선발되며,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선배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등축제’



지난 11월 5일부터 수능날인 13일까지 모교 중앙정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의 성공 진학을 기원하는 ‘등(燈)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 수 있는 선배들을 위해 1, 2학년 학생이 주축이 된 학생회가 마련했다.

학생회는 ‘수능 고득점과 성공 진학 기원 등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특수 학급 및 관심 있는 동아리(창입동아리 비즈쿨) 소속 학생 등과 함께 300개의 등을 만들어 교내 정원에 매달았다.

한지를 이용해 직접 꾸미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등을 만드는 것이 서

툴렀지만, 선배의 이름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적고 수능 고득점과 미래의 꿈을 응원했다.

‘대학 가서 여친 만나자’, ‘서울 2호선 타는 멋진 오빠’, ‘꿈을 응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말기’ 등의 재치 있는 격려 메시지로 선배 수험생에게 웃음과 응원을 전했다.

한편 교직원들은 급식실에 응원 현수막을 달아 제자들을 응원했다.

모교 김현규 교장은 “성적과 수시 결과 발표 등으로 불안한 시기에 선배 후배 간에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훌륭하다”며 “후배들의 기(氣)를 받아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이호선군 둔산서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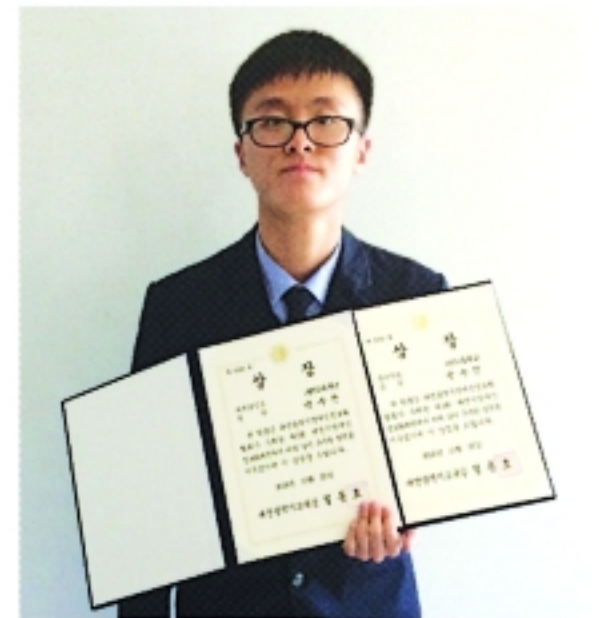


지난 10월 25일 모교 1학년 김현철(위)군과 이호선군이 봉사활동을 통해 무질서 바로잡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둔산경찰서장 상을 수상했다.

김군과 이군은 장래희망이 경찰인 친구들끼리 만든 ‘참수리 오형제(경찰관이 되고 싶은 학생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주말마다 대전둔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동네 순찰, 교통캠페인 등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에 상을 받은 김군은 “봉사활동을 통해 경찰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의 꿈에 대해서 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화제전서 금·동상



모교 박주한(2학년)군이 지난 10월 25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된 ‘제3회 대전장애인정보화제전’에서 ‘금상’과 ‘동상’을 휩쓸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박 군은 문서작성 부문에서 1등을 하며 금상을, 파워포인트 부문에서는 3등으로 동상을 받았다.

박 군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서 대전지역 1등을 차지, 전국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를 뛰어넘어 일반 학생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여주었다.

희귀질환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갖게 된 소망

2학년 7반 김연진



과학과 의학에 특별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많은 연구를 통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희귀질환을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귀질환연구 동아리는 생명과학 교과과정에서 배운 유전 분야와 대사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희귀질환의 발병원인, 대표증상, 치료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희귀질환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미래진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현재도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그들에 대한 의학적 도움의 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은 6000~7000종인데, 그 중 740여종이 국내에 보고되어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희귀질환은 어린연령에 발생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환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한' 질병입니다. 평생에 걸쳐 이환

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80% 이상이 유전성, 선천성질환으로 어린연령에서 발병합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희귀질환이 정확한 원인도, 정해진 치료법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희귀질환은 그 특성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국내에만 740여종이 보고되었을 만큼 개별질환의 종류는 다양한 반면, 질환별 환자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중에는 치료와 연구에서 철저히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질환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각 질환에 수반되는 기능장애가 심각하며, 하나의 진료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도, 질환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 것부터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까지 협진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희귀질환 치료제는 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은 수입산 독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

발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제 선택권이 없는 환자로서는 국산이 없어서 엄청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더 큰 문제는 치료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사업도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계획 정책을 통해 희귀질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11년 5월에는 서울대 어린이 병원 희귀질환센터가 개소되어 희귀질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모 그룹의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 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희귀질환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환자들이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사랑과 관심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선배님들을 본받아 꼭 훌륭한 인재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치료비가 없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 지구촌 곳곳에 봉사하고 나눔을 베풀 것입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나라와 세계의 보건과 의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희귀질환자들이 완전히 치료받고 정상인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즈쿨 활동 임실서 치즈체험



30여명의 모교 학생들이 지난 10월 25일 비즈쿨(Biz-Cool) 활동의 일환으로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다녀왔다.

교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및 각종 스마트 창업, 지역사회 아이팀 발굴을 위해 실시한 이번 체험은 임실 지역 치즈산업의 유래, 치즈 제작과정의 이해 및 스트링 치즈 제작, 피자 제조 등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학과 진로 체험과 더불어 미래 창업가의 꿈을 키우게 되며, 지역사회에는 향후 우리 지역의 아이팀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데도 아

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모교는 창업진흥원의 2014 청소년 비즈쿨 학교로 선정돼 학생들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실시하며, 3D프린터 체험, 기업들을 방문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유레카 동아리 행복장터 체험활동



모교 경영&경제동아리인 '유레카(URECA)'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대전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2014 같이유 대전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120여곳의 사회적기업

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열렸다.

'유레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해 열린 행복장터 코너에 그 동안의 수동적인 전시관 관람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모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함께 제조한 비누, 립밤, 소이캔들 등의 판매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행복장터 판매활동의 수익금을 전액을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로직업 체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해 기쁨을 두배로 키우기도 했다.

UCC 공모전서 은·동·장려상

지난 11월 3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제8회 에듀랑 UCC 공모전'에서 모교 재학생들이 은상, 동상, 장려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 창의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으로 총 125편이 응모했다.

3학년 이승준 군과 2학년 송웅섭 군은 중복 수상을 영광을 얻었다.

- 은상(2학년 김한섭 · 장우영, 작품명 <농구공의 하루>)

- 동상(3학년 이승준 · 김성근, 작품명 <추격자>)

- 장려상(3학년 이승준 · 2학년 송웅섭, 작품명 <나는 청소년이다>)

(2학년 송웅섭 · 1학년 김영후, 작품명 <대한민국의 아들로 산다는 것>)

〈대능광장〉

‘동문 사랑’ 의미 일깨워준 記者의 ‘초보 사업’

홍 덕 화(59회·연합뉴스 홍보기획부장)



최근 외국기업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영문 투자 정보 콘텐츠인 'Yonhap Daily news Briefing (YDB)' 상품을 기획·개발·마케팅까지 1인 3역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홍덕화(59회·연합뉴스 홍보기획부장)이 원고를 보내왔습니다. 홍콩 특파원 출신으로 20여년 간 중국(정치, 경제, 양안관계 등), 북한문제에 천착해온 홍 동문은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문들의 따뜻한 정을 느껴 '동문 관계'의 의미를 새삼 반추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 홍 동문의 '신규사업 추진기'를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10대 경제 대국이자 OECD 회원국이 맞습니까? 외국기업인 다수가 투자정보 부족으로 고생하는 데도, 한국 정부는 투자정보 제공 요청에 묵묵부답입니다.”

10년 전 통일외교팀(정치부)에서 '외교가' 취재 중 주한 외국대사들을 만날 때면 이런 취지의 질문을 자주 접하곤 했다. 정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나 국회 발의, 통과 법안 등 법령 정보를 영문은 커녕 국문으로도 접하기 어렵다보니 법규 위반이 잦고, 과징금 부담이 무서워 한국을 떠나는 외국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가였다.

지난해 4월 홍보기획부장으로 전보된 뒤 유럽상공회의소(ECCCK) 관계자를 만나 '뉴스 홍보' 제안을 하던 중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연합뉴스의 공공 서비스' 제안을 받았다. 이에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외국기업인 대상의 맞춤형(Tailored) 서비스'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회사에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외국기업인과 대사관 상무관 등 수십 명을 만나 원하는 정보(needs)를 파악하고 유사 상품 존재 여부와 뉴스 클리핑 정보 가격, 수요 파악 등 예비 시장조사를 했다. 경영진 앞에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사업이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에 부합한다”는 요지로 신규사업 추진 보고를 하자, 사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이러쿵저러쿵 논란을 벌이지 말고 즉각 시행” 지시로 힘을 실어줬다. 9개월 준비 끝에 Yonhap Daily news Briefing(YDB) 상품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수백 곳의 잠재 구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서비스를 한 후, 5월부터 마케팅에 들어갔다. 지금은 마케팅과 함께 신규 잠재 고객 대상의 2-3개월 무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YDB는 월-금(오후 4시) 주 5회 이메일 뉴스레터로 제공되는데, 웹사이트 이

용(ID/PW 제공)도 가능하다. 이는 외국 출장 시 인터넷 환경 문제로 이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고객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뉴스 다이제스트 ▲정부, 국회 법령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 ▲주요 부처, 대기업 인사 ▲이 주일의 북한 주요 뉴스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뉴스 다이제스트는 바쁜 일정으로 신문 정독이 어려운 CEO, 임원들이 차량이동 시에도 10분이면 한국경제와 기업, 투자환경 등을 일견할 수 있도록 편집돼 있다. 법제처의 공포 법령과 입법예고 시행령, 시행 규칙, 국회 입법안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법령 콘텐츠는 국내 대기업 법무팀이나 위기관리팀, 준법지원팀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 국세청, 금감원, 식약처 등 10여 개 주요 부처들의 주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월요일 오전 8시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들은 최대 5일까지 '선제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뉴스와 소식 등을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달하는 것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구독자들의 전언이다.

긍정적 평가 우세 불구 실적은 부진

태평양 법무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YDB의 공익성을 주목해 무료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법제처 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고문은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도 있는 서비스”라며 “현직에 있다면 대통령께 보고해 정부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줘 고맙다”는 법제처 간부의 평가도 사업 추진에 힘이 됐다.

에너지 업체인 S사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평가했다. 그는 “모 법무법인이 방대한 법령 정보를 보내주지만 분야별 sorting이 안 돼 활용

하지 못한다”며 “이런 점에 착안해 법무법인과 합작하면 윈-윈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굴지의 모 법무법인이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수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태평양과의 관계를 생각해 수락하지 못했다.

미국계 은행 간부도 “외국기업보다도 국내 기업 법무팀을 우선 공략해보라”고 조언했다. 기업금융 업무를 해보니 대기업 법무팀 다수가 회사 소송에 급급하느라 정부법령 개·폐, 국회 발의 법안처리 과정을 알지 못하는 등 회사 장애와 직결된 외부 환경 변화에 어두운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은 외국합작 법인에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영문 정보를 주게 돼 있는데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고전하게 됐다. 연초에 터진 3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2014.6)됐다. 이로 인해 MOU 체결을 통해 회원사 이메일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한 유럽상공회의소(ECCCK)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 외국상의(商議) 디렉토리에 등록된 800여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스팸 메일로 간주돼 개봉률이 10% 수준에 그쳐 외국상의(商議)를 통한 대대적인 시범 서비스 등 홍보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가치 판단’ 앞서 동문 격려에 용기백배

두 차례 상품설명회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인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날로 콘텐츠를 강화해왔으나, 구독료(월 30만원) 때문인지 예상 만큼의 계약 실적은 올리지 못했다. 부원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부장인 필자까지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 상품설명회에 참석한 시티뱅크 직원들의 격려와 마수걸이 계약, 또 중국 휴가 중 롯데호텔 임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는 등 11월 현재 19개사와 계약했으나 여전히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회사를 나설 때면 “오-늘-도- 걷는-다-만은 정처없-는 이-발-길-...”로 시작되는 백년설의 ‘나그네 설움’ 노래가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곤 한다.

상황이 이런데다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굴하지 않고 날로 콘텐츠 강화와 영업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데는 대전고 동문들의 격려와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님과 정문호(55회) 동문을 통해 BASF 코리아 대표이

사인 신우성(55회) 동문을 찾아 뵙고 설명드리니 “이런 서비스도 있네”라는 따뜻한 격려 말씀을 들었다. 신 동문은 “내가 보기엔 구독 가치가 있지만 결정은 독일 본사 직원이 하는 만큼 검토 지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만에 총무팀이 구독신청을 해왔다.

신한 BNP자산운용 대표이사인 조용병(55회) 동문은 구독 계약만으로 그치지 않고 BNP PARIBAS BANK와 계열사인 CARDIF생명 CEO 두 명과의 면담까지 주선해줬다. 동기인 황국환 수출입은행 홍보실장과 성주영(60회·산업은행 홍보실장) 동문, 박천웅(60회·이스트우드 자산운용 대표) 동문도 힘을 실어줬다. 또 이봉원(45회) 동문이 구독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시는 등 많은 동문들께 마음의 빗을 지게 됐다. 선후배 간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모교와 ‘동문 사랑’에 대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법안 다수 발의 동문 의원들에 자부심

YDB 에디터로서 콘텐츠 제작 전반을 관장하면서도 법령 콘텐츠 제작은 직접하고 있는데, 국회 입성 동문들의 활발한 법안 발의 장면을 볼 때면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특히 이명수(52회) 동문은 Watchbly(‘지켜본다 국회’) 앱 자료에 따르면 의원 300명 중 법안 발의 건수(2014.11 현재)가 96건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태원(47회) 동문, 이운룡(59회), 이장우(63회), 김용태(66회) 동문 등의 이름도 법안 발의자 명단에 자주 오르고 있는 편이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YDB 사업 책임자로서 공격기능 역할에 대한 보람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이를 통해 사업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돈벌이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 이 상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이메일 리스트 제공이나 설명회 개최 기회 주선 등을 도와주시사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국내 회사의 외국 합작 파트너나 한국을 자주 찾는 단골 고객에게 YDB를 이메일 또는 인쇄물로 전달해주시거나 법무실, 위기관리팀 등에 전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YDB는 외국기업가의 투자활동 지원은 물론 본국이나 국내 지방 지점 등에 종횡으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대능인의 자부심을 걸고, 이 서비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영문 경제정보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동문 여러분께 드린다.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찬조현황 (2014.9.28)

현금

(단위 : 원)

이름	기수	상품내역	금 액
재경동창회		현금	1,000,000
김종구	38	현금	300,000
김각영	41	현금	300,000
신현일	48	현금	2,000,000
이종철	48	현금	1,000,000
황성연	51	현금	1,000,000
조동인	56	현금	2,000,000
소계			7,600,000

물품

이름	기수	상품내역	금 액
이상량	46	전기주전자 4개	400,000
목이균	48	건강음료즙 10박스	400,000
류제민	48	커피세트	1,000,000
김영태	51	명품장류 5세트, 명품장류 2세트	1,500,000
송철수	51	커피메이커1, 골프공2타스	200,000
황성연	51	기능성양말4pcs 1세트 *180세트)	1,800,000
박근태	55	선양소주 10박스	300,000
조동인	56	해커스어학원 동영상수강권 20매	2,000,000
권인채	56	화장품 세트 5	800,000
정필경	56	제습기 1대	400,000
갈호철	56	백삼액1, 홍삼정5	1,000,000
윤재경	58	쌍용자동차 로고 메트 170개	1,700,000
이의범	61	ab 2매, 바소 2매	4,000,000
김병근	63	티셔츠 170매	5,000,000
총계			21,500,000

제32회 재경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찬조현황

(2014.6.6)

이름	기수	금 액	협찬내용
재경대전고동창회		1,000,000	
오능회		300,000	
이동호	38	100,000	
한준환	45	300,000	
목이균	48	200,000	
권오상	49	500,000	
강직수	51	2,000,000	
조동인	56	상품권 10매	동영상 수강권(10만 원)
이의범	61		손수건 100장
기별분담금 12개 기수		1,800,000	43,44,45,46,48,49, 50,51,53,54,55,60

제33, 34회 테니스대회 찬조현황

33회(2014.4.20) / 34회(2014.10.19)

이름	기수	금 액	협찬내용
재경동창회		1,000,000	
이동호	38	100,000	
강현모	45	100,000	
목이균	48	200,000	
한승희	49	800,000	
김주연	49		남현우 사인볼 2개
박용섭	50	200,000	
이건복	51	200,000	
이해규	51	200,000	
최윤중	53	200,000	
정영재	54	200,000	
김선진	55		테니스코트 6면
김진철	58		비비크림 57개(40만원 상당)

협찬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페이פל 구매 기부자 명단 (2013.12.01~2014.11.30)

이름	기수	동문기업	매출액	기부액(2%)	
송영현	43	GES 성인고시학원	87,500	1,750	1,750
유병만	43	비엠글로벌 주식회사	10,872,700	217,460	217,460
송재준	44	한모기술	2,483,262	49,670	49,670
이기문	47	한모종합관리	784,700	15,700	15,700
조흥구	48	대현기건(주)	4,890,400	97,810	97,810
황열	48	황열세무회계사무소	275,500	5,510	5,510
이상현	49	두루셀텍	1,297,314	25,950	161,900
		두루약품	5,745,782	114,920	
		두루이디에스주식회사	130,400	2,610	
		두루케이칼(주)	920,650	18,420	
고길석	52	진영코리아	-	-	-
장석균	52	서초아동발달연구소	5,062,200	101,250	101,250
이상덕	53	(주)진흥주물	971,050	19,430	19,430
서용주	54	종합건축사사무소도우건축	680,140	13,610	13,610
오선영	55	파라다이스산업	29,236,418	584,730	584,730
한중수	55	마이크로디지털	406,000	8,120	8,120
김용덕	56	재경대전고동창회	226,990	4,540	4,540
남기복	56	케이엠알 주식회사	603,160	12,070	12,070
송서영	56	(주)삼일케이칼	401,900	8,040	8,040
임호성	56	상헌중학교	1,585,740	31,720	31,720
조동인	56	교암 종로편입 강남역캠퍼스	-	-	1,400,890
		교암 종로편입 종각캠퍼스	-	-	
		캠프스티디	3,092,930	61,860	
		해커스패스	13,731,400	274,630	
		해커스공무원	6,671,038	133,430	
		해커스어학연구소	4,946,152	98,930	
		해커스어학원	33,264,760	665,300	
		해커스종로	8,336,526	166,740	
김경수	58	맥컴에이에이피(주)	6,660,260	133,210	203,800
		맥컴코리아(주)	3,529,300	70,590	
조철연	58	심화세무회계사무소	1,127,280	22,550	22,550
박승태	59	피제이디자인	8,348,229	166,970	166,970
박영우	59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1,680,800	33,620	33,620
김재필	60	단국대학교	4,471,815	89,440	89,440
김태일	60	(주)알루피아	139,250	2,790	2,790
윤여송	60	사랑의교회	9,491,308	189,830	189,830
이명섭	60	삼보유화주식회사	2,248,450	44,970	44,970
정진형	60	유클릭	6,100,973	122,020	126,830
		주식회사 유세이프	240,400	4,810	
최기남	60	천지세무법인	14,010,876	280,220	280,220
이상범	68	특허법인 주원	24,000	480	480
연성훈	70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4,226,650	84,540	84,540
정창용	70	해피정닷컴	30,000	600	600
이승상	71	대영회계법인	-	-	-
합계			199,195,203	3,984,060	3,984,060

※ 페이פל 매출액의 2%는 재경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재경동창회 기별 분담금 납부 현황

기 수	2013	2014분담금	기 수	2013	2014분담금
31회	-	-	56회	440	270
35회	-	-	57회	440	270
36회	-	-	58회	440	270
37회	30	-	59회	440	270
38회	30	-	60회	440	-
39회	80	-	61회	440	270
40회	80	50	62회	440	270
41회	230	120	63회	-	270
42회	230	120	64회	250	200
43회	230	120	65회	-	-
44회	230	120	66회	140	-
45회	280	170	66회	-	-
46회	180	170	67회	-	100
47회	280	170	68회	50	-
48회	440	250	69회	-	-
49회	440	270	70회	-	-
50회	440	270	72회	-	-
51회	440	270	74회	-	-
52회	200	200	76회	-	-
53회	440	270	81회	-	-
54회	440	270	82회	-	-
55기	440	270			

2014 대능가족등반대회 기별분담금 납부현황

2014. 12. 1. 현재 (단위 : 원)

기 수	납 부 액	비 고
44	1,000,000	
45	1,000,000	
46	1,000,000	
47	1,000,000	
48	1,000,000	
49	1,000,000	
50	1,000,000	
51	1,000,000	
52	1,000,000	
53	1,000,000	
54	1,000,000	
55	1,000,000	
56	1,000,000	
57	1,000,000	
58	1,000,000	
59	1,000,000	
60	1,000,000	
65	1,000,000	
67	500,000	
68	1,000,000	
69	1,000,000	
합계	20,500,000	

2014 대능가족등반대회 협찬현황

현금 (단위 : 원)

성명	기수	금 액	비 고
박종윤	33	500,000	(주)세창 회장
김종두	37	300,000	前 교육공무원
이규성	37	300,000	KORAMCO자산신탁회 회장
김정배	38	100,000	前 서울시 공무원
이동호	38	100,000	前 교육공무원
김각영	41	300,000	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건영	42	1,000,000	서울정형외과 원장
오수정	44	1,000,000	서부병원 원장
이종훈	44	1,000,000	대덕약국 대표
이영민	47	100,000	대전참정형외과 원장
이기재	48	3,000,000	(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이종철	48	1,000,000	(주)위드하나 대표이사
전병구	51	200,000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
유하용	52	100,000	파랑새기획 대표
이명수	52	300,000	국회의원
송하영	52	500,000	한밭대학교 총장
김현규	53	1,000,000	모교 교장
김영대	53	100,000	(주)팩컴코리아 국내사업본부 이사
김용욱	56	1,000,0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송인수	56	1,000,000	(주)송도베스트타운개발 대표이사
변재훈	58	500,000	타임문고/사이복스토어/문산세이복스 대표
김석민	62	200,000	대전제일화환 대표
김정일	63	100,000	법무법인 대영 사무장
이보행	63	200,000	대현광고기획 대표
재경동창회		1,000,000	
젊은대교회		200,000	60회 이후 전현직 임원모임
대흥동 내집식당		100,000	
합계		15,200,000	

물품

성명	기수	협찬물품	비 고
박근태	55	〈린〉 소주 600병	(주)더맥스컴퍼니 대표이사
김용욱	56	비타500 1000병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고정균	60	여주즙 660봉지	경기도 포천 봉화산농장 대표
정정목	70	안주접시 500개	보림실업(주) 대표
강민구	80	렌즈 크리닝 일화용 티슈 600세트	(주)자우버 대표

일백백운동 개인별 납입현황 (2014년 9월 입금분 현재)

성 명	기 수	합 계
이근영	24	1,710,000
이면상	25	1,000,000
재경 30회 동창회	30	138,000
송찬호	31	135,000
조희제	31	840,000
류지문	33	200,000
36회 동창회	36	960,000
강인순	36	102,000
김관식	36	180,000
이계상	36	336,000
이광수	36	252,000
최창립	36	102,000
김종두	37	351,000
배정설	38	72,000
윤석중	38	297,000
조봉연	38	306,000
최인수	38	76,000
박해욱	39	342,000
유성홍	39	342,000
이영웅	39	342,000
이정배	39	1,000,000
임성수	39	18,000
전순구	39	171,000
하민환	39	363,000
황동서	39	45,000
박인규	41	522,000
정종진	41	504,000
42회 동창회	42	5,000,000
강윤중	42	180,000
강중구	42	171,000
곽종철	42	126,000
구자윤	42	171,000
권호춘	42	180,000
김경기	42	174,000
김광웅	42	39,000
김교선	42	153,000
김근섭	42	57,000
김도정	42	180,000
김명준	42	345,000
김민식	42	99,000
김세중	42	522,000
김시조	42	180,000
김용현	42	180,000
김유명	42	495,000
김정희	42	177,000
김주식	42	549,000
김창수	42	174,000
김학삼	42	180,000
김현태	42	180,000
김현중	42	162,000
김흥기	42	180,000
남영진	42	168,000
노영철	42	180,000
노태남	42	180,000
류제선	42	183,000
문무남	42	177,000
민병관	42	168,000
민정식	42	63,000
민춘기	42	180,000
박건영	42	1,800,000
박양훈	42	177,000
박종본	42	549,000
박종호	42	324,000
박창용	42	180,000
박태원	42	174,000
석희선	42	78,000
송광호	42	138,000
송수호	42	21,000
송신호	42	171,000
송영국	42	189,000
송영택	42	555,000
송재춘	42	171,000
송철호	42	132,000
신윤철	42	531,000
심완섭	42	288,000
안상일	42	36,000
양동훈	42	162,000
양세원	42	153,000
오만진	42	540,000
우인봉	42	189,000
유병두	42	69,000
이건표	42	54,000
이길웅	42	183,000
이래경	42	138,000
이문현	42	180,000
이상귀	42	180,000
이시영	42	477,000
이영길	42	180,000
이완승	42	105,000
이용빈	42	87,000
이웅배	42	171,000
이윤재	42	180,000
이은웅	42	177,000
이정우	42	522,000
이채규	42	180,000
이춘근	42	177,000
이풍제	42	915,000
안현만	42	180,000
임무길	42	1,890,000
임호원	42	147,000
장풍치	42	180,000
장흥기	42	180,000
정국희	42	87,000
정무치	42	180,000
정병길	42	72,000
정준식	42	180,000
정진광	42	177,000
최 공	42	123,000
최낙영	42	180,000
최상호	42	183,000
최송미	42	180,000
최창식	42	45,000
표창수	42	177,000
김규진	43	870,000
이재돈	43	153,000
44회 동창회	44	8,200,000
김병기	44	72,000
김종후	44	72,000
김철기	44	36,000
박영희	44	36,000
박종진	44	300,000
오세영	44	36,000
이남복	44	300,000
이종훈	44	1,000,000
이창주	44	342,000
이현구	44	36,000
임채훈	44	36,000
조병연	44	72,000
최용규	44	72,000
홍명식	44	72,000
홍오장	44	36,000
김태용	45	165,000
오영환	45	324,000
홍승원	45	930,000
김기정	46	99,000
권두성	47	795,000
권용문	47	162,000
김기욱	47	513,000
김용진	47	165,000
나정원	47	36,000
문종욱	47	15,000
박종서	47	540,000
배정기	47	75,000
양종대	47	954,000
유병환	47	168,000
유홍연	47	15,000

일백백운동 개인별 납입현황 (2014년 9월 입금분 현재)

성 명	기 수	합 계
윤창식	47	93,000
이정찬	47	78,000
이종현	47	165,000
장훈진	47	90,000
전궁령	47	24,000
전명수	47	111,000
전창배	47	495,000
최준철	47	81,000
조재영	48	567,000
김원명	49	630,000
유익규	49	405,000
강암구	50	18,000
곽명신	50	9,000
곽정흠	50	18,000
김재성	50	108,000
김호진	50	171,000
나상철	50	57,000
박원희	50	159,000
송세현	50	162,000
송정진	50	162,000
송철호	50	33,000
송철호	50	141,000
안정권	50	27,000
오세진	50	3,000
왕창근	50	51,000
유명준	50	90,000
유재복	50	24,000
육관홍	50	351,000
이규홍	50	57,000
이선행	50	153,000
이승기	50	114,000
이주환	50	150,000
장홍래	50	126,000
정성희	50	123,000
정인호	50	477,000
조주형	50	24,000
주 성	50	171,000
최하용	50	306,000
황의철	50	174,000
경창호	51	810,000
황인방	51	90,000
김재석	52	351,000
이학준	52	108,000
정병춘	52	334,000
김현규	53	225,000
노종진	53	795,000
송달영	53	45,000
이상실	53	180,000
임 철	53	156,000
강대규	54	99,000
고정호	54	477,000
고창환	54	30,000
권태원	54	840,000
김기현	54	504,000
김세겸	54	855,000
김원경	54	168,000
김원봉	54	504,000
남승황	54	258,000
문희식	54	660,000
박종덕	54	1,680,000
손진수	54	168,000
송병두	54	840,000
송일섭	54	168,000
오영선	54	138,000
유영서	54	504,000
윤석만	54	690,000
이동규	54	48,000
이범우	54	336,000
이용희	54	840,000
이희석	54	1,410,000
임종갑	54	504,000
장경태	54	378,000
조성재	54	216,000

성 명	기 수	합 계
조영환	54	168,000
홍창수	54	468,000
박백범	55	585,000
손종배	55	45,000
이지한	55	288,000
이흥구	55	75,000
고재영	56	318,000
구자현	56	441,000
권선호	56	93,000
김정엽	56	102,000
김충현	56	90,000
김학용	56	90,000
민장기	56	147,000
민장홍	56	576,000
박강희	56	102,000
박재찬	56	144,000
박주범	56	60,000
박찬인	56	153,000
박찬호	56	162,000
성광진	56	162,000
손 윤	56	162,000
송양섭	56	150,000
송인수	56	288,000
양성직	56	324,000
오세진	56	93,000
윤춘원	56	102,000
이범준	56	54,000
이원형	56	102,000
이중엽	56	510,000
임창덕	56	423,000
장완호	56	105,000
전성일	56	87,000
한구인	56	153,000
허 정	56	165,000
홍치영	56	153,000
황인호	56	162,000
58회 동창회	58	10,800,000
김원진	58	504,000
소양섭	58	36,000
여성우	58	252,000
이후영	58	45,000
구분상	59	36,000
김동성	59	174,000
김상민	59	156,000
김연수	59	180,000
김영봉	59	120,000
김용성	59	120,000
김재한	59	183,000
김태범	59	567,000
김택길	59	177,000
김형준	59	48,000
나경수	59	189,000
류재호	59	192,000
맹성재	59	90,000
박대용	59	189,000
박승태	59	162,000
박천수	59	192,000
송도영	59	405,000
안종규	59	162,000
안종원	59	81,000
엄성용	59	189,000
이동구	59	177,000
이상진	59	192,000
이재열	59	495,000
전영호	59	156,000
전준규	59	336,000
조성환	59	159,000
주훈성	59	6,000
60회 동창회	60	5,000,000
고정균	60	77,000
권형준	60	162,000
김 압	60	585,000
김진선	60	93,000

성 명	기 수	합 계
김종무	61	243,000
김진선	61	171,000
임청규	61	159,000
김병각	62	342,000
이기상	62	513,000
정진문	62	477,000
최철용	62	72,000
김봉주	63	51,000
김수경	63	171,000
박도신	63	555,000
이종성	63	378,000
박종민	64	495,000
강영신	64	126,000
김강우	64	324,000
김경철	64	108,000
김규완	64	63,000
김성호	64	45,000
김창준	64	132,000
박병천	64	72,000
백영철	64	126,000
성진모	64	39,000
송일석	64	21,000
오인식	64	189,000
우상태	64	189,000
유동준	64	9,000
이경환	64	204,000
이명원	64	186,000
이육재	64	486,000
임경택	64	60,000
정한오	64	189,000
조 현	64	150,000
최규성	64	216,000
김진익	65	108,000
임문묵	65	288,000
강세봉	66	234,000
김진영	66	297,000
이종민	66	99,000
최창기	66	153,000
최환수	66	750,000
고영호	67	522,000
김갑중	67	72,000
김용걸	67	495,000
박창희	67	240,000
이제희	67	69,000
조현욱	67	171,000
황세근	67	150,000
김창선	68	165,000
김현채	68	351,000
김형기	68	114,000
성용제	68	48,000
안경환	68	513,000
이돈우	68	45,000
정인우	68	261,000
윤효섭	69	168,000
이병권	69	399,000
태주현	69	60,000
정창용	70	138,000
김진석	72	825,000
김봉진	75	150,000
유재홍	75	72,000
손진복	76	141,000
송태근	76	99,000
김성곤	77	174,000
윤천식	78	21,000
엄복현	79	504,000
김준학	80	168,000
최재구	80	9,000
이지원	82	369,000
윤현민	85	33,000
이신형	85	87,000
합 계		119,969,000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高≡ 와 총동창회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 67회 동창회

I  대고

김광중 (주)그린모스 대표
 김준채 (주)오티스 대표(화학약품 수입유통)
 엄인섭 보성중기(주) 대표(중장비 로우더 임대업)
 김기석 성모연합의원 원장(충남 당진)
 김종일 (유)대전수입주류상사 대표
 신동준 (주)리바트 둔산네오스 대표(사무가구)
 고영호 고문
 이철희 고문
 정운덕 연합뉴스 대전·충남 취재본부
 이경원 (주)한라오토 대표(중고차 판매)
 이철영 한울회계법인
 노정래 P & TECH 부사장(반도체장비)
 이영호 고문
 양원철 한전 KDN 팀장
 김병수 고문
 배종표 고문
 우광수 우리들치과 원장(송촌동 주민센터 5층)
 한월수 (주)서경 대표(장비가공)
 유병무 웨딩그룹 정일품 대표
 이재영 (주)서광금속 대표
 송근일 미즈여성병원 원장
 김태형 동광건설(주) 대표



 웹프로모션 전문그룹
한국엠비즈

이사 고영호 (67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05, 401(탄방동) Mobile 010.4422.6654

Tel_1544-9968 / Fax_0303-0799-1588

Web_www.mbizplus.com

홈페이지 · 모바일웹 · 온라인광고



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 68회 동창회

• 회장 김현채 • 재경회장 김기태 • 총무 성용제 • 재경총무 장연태 • 총무 최우현 • 재무 김상수 • 감사 박재형

S-CARplus (주)카니즈 대표 김 경 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2 홈플러스 4층 TEL. 042)611-8098 / 010-6751-0009 E-mail, whuykk712@nate.com 자동차정비서비스 둔산점	SAMSUNG 삼성디지털프라자 (산성점/신탄점) 대표 김 상 수 010-5456-9933	LOUIS CASTEL 루이카스텔 유성점 대표 김 선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52-10 프라이빗빌딩 1층 TEL 042,822,7007 H.P 010,3405,0396 E-mail hssunill@hanmail.net www.louiscastel.com	Your Dream YD 영동제약주식회사 마케팅본부 본부장 / 이사 김 재 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76 TEL. (대표)031)329-2000 / (직통)031)329-2014 FAX. 031)329-2002 / Mobile. 010-5423-1338 e-mail, jason@yd-diagnostics.com Web Site, www.yd-diagnostics.com
신성옵틱 대표 남 승 원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65-77번지 Tel. 042-535-1514 Fax. 042-528-9722 Mobile. 010-3442-7467 E-mail, nsw1970@hanmail.net	SAMIL 삼일회계법인 박 재 형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605호(305-150) Tel 042-716-3032 Fax 042-716-3036 Mobile 010-6322-0336 e-mail jaehpark@samil.com	M MEDIZS 주식회사 메디스 대표이사 박 지 형 E-mail park@medizs.com / jakehpark@gmail.com Skype jihyongpark@gmail.com Tel 042. 933. 5511 Fax 042. 933. 5525 Add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94-10. 305-509 Cell 010. 9125. 4256	창사 50주년 대전 MBC 홍성지사/지사장 서 주 석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원신리 846-1 불린서빌딩 402호 Tel. 041-631-6556 Fax. 041-631-6558 Mobile. 010-5455-0081 jsseo@mjmbc.co.kr
Jak 중앙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감정평가사 안 경 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5 그랑수아 빌딩 5층 501호 tel : 042-365-0900 / fax : 02-365-0901 cell/p : 010-5405-5928 e-mail : jungang10@kapaland.co.kr	세종통상(주) SEA JONG TRADING Co.,LTD 대표이사 오 경 석 M. 010-8997-009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원로 45 (하계동) 2층 TEL. 042) 826-6214~6 FAX. 042) 826-6217 E-mail, anatoman@nate.com Homepage. www.e-sjt.co.kr	디앤씨건설(주) 건설사업부 이사 유 형 준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4-7 202호(지족동, 내오라이프빌딩) 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함박로 318 tel. 044 868 6251 fax. 044 868 6252 mobile. 010 5409 4633 webhard_ID : dnc10279 / PW : 1111	다정한의원 원장 이 기 동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66-16번지(2층) (세이백화점 앞 오류시장입구) 전화 (042)221-3378, 533-1075 팩스 (042)535-3040 E-mail : lkd7317@hanmail.net 중풍·경년기·수험생·만년피로·비만·불임 클리닉
특허법인 주원 법무법인 / 세무법인 / 관세법인 대표변리사 기술거래사/기술지킴이사 이 상 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711 건설회관 9층(논현동 71-2) Tel. 02-562-1716 직통. 070-4421-3362 Fax. 02-562-0442 Mobile. 010-3852-6880 E-mail, sblee@joowonpat.com www.joowonpat.com	CARNIZ 수입차·국산차·정비서비스 점장 이 종 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30-15번지 M. 010-8848-2385 T. 042-822-2990 F. 042-822-3360 www.jeffrees.co.kr	대전상공회의소 비서실장 전 용 필 (302-708)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Tel. 042-480-3028 Fax. 042-480-3010 Mobile. 010-5407-6733 E-mail, yp4345@hanmail.net	(자)대광운수사 (주)한빛물류 Hanvit 대표 김 현 채 H.P 010-5455-4477 E-mail ceohckim@naver.com [대광]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89-1 Tel 042)933-5700 Fax 042)935-7900 [한빛]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30-2 Tel 043)733-9595 Fax 043)733-9594
기쁜정형외과 원장 유 현 종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1동 467-2 T. 042-271-0675 H.P 010-9592-4912	해군본부 중령 이 동 원 010-5330-0931 대한민국해군 REPUBLIC OF KOREA NAVY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노동조합 충청지역본부장 김 창 선 010-7925-0314	대고 100주년 기념 대지 푸는 대노인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68회 김 형 기
보령대리점 개업

office:충남 보령시 대해로 42 Tel 041-934-3440
home:대전 서구 관저북로 52, 109-1303(관저동, 대자연마을)

기억해 주신다면
평생 특별혜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0-5402-3212



≡高≡ 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 69회 동창회

• 회장 박준일 • 재경회장 김대환 • 총무 정돈희 • 재경총무 유영근

신한금융그룹 강수종 금융공학센터 팀장 Corporate Dealing & Consulting 100-7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 2가) TEL: (02)6355-8011(내선) / FAX: 0505-178-0190 Mobile: 010-2304-5914 E-mail: karl7@shinhan.com	엘림 대표 / CEO 김대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11 535호 (아파트, 클러스타워 5층 이튼비즈) Tel 031-8017-2858 / Fax 031-8017-8259 H.P 010-2305-0530 / Email ceo@elimconsulting.kr www.elimconsulting.kr	法務法人 瑞光 변호사 김상동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피러스 12층 E-mail: bellemain@naver.com 전화: (02)6203-2660~1, (02)6203-0234 FAX: (02)6203-2662 H.P: 010-7186-967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김석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우151-742 Phone 02.880.4103 Mobile 010.8620.0283 E-mail seokhokim@snu.ac.kr
김수장 한의원 원장 김수장 •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 내이비지인 의료상담 한의사 Tel. 031) 215-2175 Fax. 031) 214-2175 Mobile. 010-3450-4512 E-mail. passfree@hanmail.net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267-7 중앙프라자 7층(영통구청 바로 옆) http://blog.naver.com/clinic4pain	노무법인 유엔 LABOR CORPORATION & Co. www.unhr.co.kr 공인노무사 파트너 김운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우덕빌딩 6층 Tel. 02-508-7016 직통 02-2632-7412 Fax. 02-6008-3877 e-mail. kwh@unhr.co.kr Mobile. 010-6350-0155	상무 류문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1 CF호텔 B1 TEL 031-714-5770, 031-714-2867 Mobile 010-2641-7275	고려은단 koreaesundan.com 朴椿壹 Chun Il Park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140번길 33 펜타뷰아파트 105동 804호(대동) 105-804 Pentaview Apt. 33 140 Gyeok-ro, Dong-gu, Daejeon, Korea M 010-4481-5279 F 042-301-5279 E pci0525@eundan.co.kr
이사 박훈 010-3409-6128 SK E&S 기술지원센터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1동 192-17번지 Tel 042-224-4077, 4078 Fax 042-224-4079 E-mail cwair7@hanmail.net 산성에너지·EHP·GHP·폐열회수시스템·산업용냉동기·고효율공조장비	삼화기전 SAMWA ELECTRIC 153 TAN TAN ELECTRIC BOX SIMPLE : 전선과 배선작업 STRONG : 일반적이고 견고한 제품 SPEEDY : 빠른 설치·제품검정 고품질 설계 Vision을 실현하는 기업 대표 신동윤 010-5400-0208 sdykorea@naver.com 전기전자BOX 스마트환경제어 분전반 콘트롤박스제작 Tel. 042621-0982, 670-8585 Fax. 042621-0983, 621-0985 www.samwhaelectric.com 대전 대덕구 대하로 160 산업유통상가 15-114	한불화장품주식회사 HANSUL 양종택 기술연구소 / 색조팀 / 수석연구원 공장 / 369-834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547번길 62 DIR Tel: 043-879-2265 Fax: 043-881-2128 Mobile: 010-3407-1909 E-mail: yangji@hanamil.net yangji@hansul.co.kr	두경 건축사사무소 대표 / 건축사 유영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1005호(아수동, 씨티오피스타워) 10F 1005, Cityoffice-tower, 411, Yanghyeon-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 031-755-5049 F. 031-755-5045 M. 010-3466-5049 E. doo_gyeong@naver.com
진주화이트웨딩홀 · 뷔페 결혼피로연 · 돌잔치 · 연말모임 · 동창회 · 개업식 · 출장부예전문 이승배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2 예약문의: (055)762-2345, 763-1333 FAX: (055)763-1334 Mobile: 010-6675-8759	변호사 이영선 무)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로 74, 108호(둔산동 1398 인곡타워) TEL: (042)482-6611 FAX: (042)472-6622 H.P: 010-3232-7208 sun90567@hanmail.net	IVIS Your Smart Partner (주)아이비시스템 CEO 장강일 (465-011)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864호(막중동) T +82/(0)31-796-4611 F +82/(0)31-790-4610 M +82/(0)10-2320-4354 E kichang@ivis.co.kr	대교 100주년 기념 대능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30430-중-5753호
www.eldoctor.co.kr

EL Dental Hospital 이엘치과병원

• 16명의 진료의사
• 매일 야간진료 시행

이엘치과병원은 보다 높은 의료수준을 향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병원장 이도훈
(69회 졸업)

양악 · 안면윤곽 · 임플란트
교정 · 소아 · 치주 · 보철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 ~ 오후 6:30
야간진료(월~금) : 오후 6:30 ~ 오후 8:30
토 요 일 : 오전 9:00 ~ 오후 5:00
일 요 일 : 휴진

대표전화
1644-2872